



사람 사람 7

한국 현대 도자기 전시회

2월 7일부터 코리아소사이어티 갤러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한국 현대 도자기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털리)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함께 손잡고 여는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7일 코리아소사이어티 갤러리(950 3에브뉴)에서 시작된다. 전시는 '한국 현대 도예전(Korean Contemporary Ceramics)'이라는 제목 아래 '분청사기의 대가'로 불리는 도예가 윤광조씨, '한국 현대 도예 1세대' 김익영씨를 비롯해 이민규·김영미·신상호·강종숙·김시만·주지완 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도예가 윤광조씨는 필라델피아미술관, 시애틀미술관 등지에서 개인

전을 연 바 있으며, 2012년 메트로 폴리탄박물관에서도 작품 '카오스'를 선보인 바 있다.

김익영 작가의 경우 윤광조 작가와 함께 2004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조선 백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내는 작품으로 잘 알려졌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로버트 털리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회장은 "뉴욕에서 한국 현대 도예전이 이렇게 크게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가들의 작품을 모아 선보이게 돼 기쁘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212-759-7525. www.koreasociety.org.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